

2022학년도 수능대비 “연계교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문제지 1회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밭장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나)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뚫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뚫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1. <보기>는 ㉠~㉤의 사전적 의미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오히려: 「1」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 ㉡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에는.
 - ㉢ 기꺼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 ㉣ 이윽고: 얼마 있다가. 또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 ㉤ 결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 ① ㉠을 통해 앞뒤 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며,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관련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완료될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화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을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면서, 화자가 가정된 상황이 변화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음을 부각하면서, 이것이 타인을 도의적 잣대로 판단한 결과임을 제시하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미완의 문장 종결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한계상황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 더욱 부각된다. (가)는 극한의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숨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이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임을 역설적 인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하늘도 다 끝나고’ 나서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는 불모의 상황과 ‘북쪽 툄드라’의 ‘찬 새벽’인 혹한의 상황을 병치한 것은, 극한 한계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이겠군.
- ② (가)에서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리고 ‘꽃 성’을 이루고 ‘제비 떼’ 날아오는 희망적인 봄이 도래하리라는 기대는,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한겨울’, ‘한계령의 한계’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은, ‘못 잊을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부각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조난의 상황을 ‘눈부신 고립’과 ‘동화의 나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대방과 ‘운명이 묶였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을 암시하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현실’이 ‘공포로 변하’더라도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라는 화자의 다짐은, 자아의 분열이 초래되는 한계 상황이 해소되리라는 기대감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경우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그 대표적 예로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법상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시효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밭주한 공사를 을이 완료한 상황에서 을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을이 갑에게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효 제도에 따라 을은 사법상 권리가 소멸하여 갑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을의 관점에서 ㉠ 시효 제도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은 그러한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 법질서*를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단지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와 법질서를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거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은 위협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착화되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그 권리 행사를 조력할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증거 보전의 곤란’도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들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진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흩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현재의 사실 관계 외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거 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효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시효 제도로 ‘취득 시효(取得時效)’와 ‘소멸 시효(消滅時效)’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 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 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민법은 물건*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점유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취득 시효 규정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법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인 '취득 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 법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물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면 취득 시효 완성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시효 완성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시효 제도인 '소멸 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에 의해 생기는 이익인 '시효 이익'을 받는 자에게 권리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지배적 견해는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전자의 경우,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관계: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사실상의 관계.
 *권리관계: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법질서: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질서.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채권: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시를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법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통념의 한계를 언급한 후 통념에 대해 논박하고 있다.

5.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설명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	
		옳다	그르다
①	우리 민법은 소송의 효율성이 저하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②	소멸 시효는 사법상 권리의 소멸, 취득 시효는 사법상 권리의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다.	○	
③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	
④	'증거 보전의 곤란'에 따르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의 경우 형식주의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시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6. '시효 제도'에 대해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정한 권리관계와 사실 관계 모두를 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②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사실 관계를 무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③ 실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④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제 사실 관계를 바꾸어 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⑤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7.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a. ㉠은 시효 이익을 받는 자의 이익이 고려되려면 소송 중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b. ㉡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소멸 시효 완성이 될 수 없다고 본다.
 c. ㉠과 달리 ㉡은 판례와 지배적 견해가 취하는 입장으로,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된다고 본다.
 d. ㉠과 ㉡은 모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a, c
- ② a, d
- ③ b, c
- ④ a, b, d
- ⑤ b, c, d

8.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

< 보 기 >

선생님: 다음 사례에 언급된 내용 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시효 제도가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말해 볼까요?

A는 1993년부터 ○○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는 ○○ 토지가 자신의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몇몇하게 200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0년간 나무를 심어 길렀고, 취득 시효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한편 B가 20년간 나무를 심어 기르는 사실을 A가 알고 있었음에도 A는 ○○ 토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 ① B가 취득 시효 완성자가 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면 B는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군요.
- ②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제삼자인 C에게 ○○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B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겠군요.
- ③ A는 ○○ 토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을 B에게 행사할 수 있겠군요.
- ④ A가 20년간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진정한 권리자인 양 ○○ 토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⑤ B가 법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 규정을 고려하면 ○○ 토지의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군요.

9. <보기>를 참고하여 ㉠을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

< 보 기 >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합성어는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또 의미 관계에 따라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대등 합성어',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종속 합성어',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 ①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다.
- ②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 ③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융합 합성어이다.
- ④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다.
- ⑤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선이 비로소 자리에 나아가 정히 소매를 떨치고 단소를 불고자 할새, 홀연 공중에서 한 기러기 슬피우는 것이 들리더니 점점 구름 밖에 떨어져 과봉루로 향하여 오거늘, 소선이 단소를 땅에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안색이 돌변하며 눈물이 비 오듯 하는지라. 이윽히 있다가 그 기러기가 소선의 곁으로 날아와 멈춰 고개를 들어 슬피 우니, 소선이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의 목을 안고 실성통곡하거늘, 공주와 궁녀들이 다 크게 놀라다가 괴이히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기러기를 보니 순전히 붉은색인데 한 저간이 있어 그 발에 매였더라.

공주가 크게 기이히 여겨 급히 열어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신라국 왕비 석 씨는 원통함을 머금고 피 눈물을 뿌려 글을 태자 소선에게 부치노라. 아야. 예전에 내가 부왕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에 도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바다를 건너 남으로 향해 해숙(解叔)*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 보타산으로 영약을 찾아 갔으니, 이것이 어찌 10세 어린이의 능히 행할 바이리오? 그러나 내가 결의하고 가기를 원하되 죽기로써 스스로 맹세하니, 만약 너의 감을 허락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뜻이 있는 고로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또한 허락하였더니, 대개 너의 지성에 감격하고 상천이 돌보시고 신명(神明)이 붙들어 마침내 험난함에서도 탈 없을 것을 생각함이라. 네가 간 후에 왕자 세징이 스스로 말하되, '특별히 배 한 척을 구하여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하므로, 해상 만 리에 파도가 하늘을 치는데 내가 홀몸으로 가 보호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여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또한

허락하였더니, 어찌 반년 후에 세징은 약을 가지고 홀로 돌아왔으며, 너는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을 뜻하였으리오? 세징의 말은 가로되, ‘타인의 전하는바를 들은즉, 혹은 네가 보타산에 이르렀다가 풍파에 표류하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혹은 네가 대양에 이르러 빠졌으며 구하지 못하였다.’ 하니, 그 전하는 말이 너무 모호하므로 진실로 믿기 어렵고 이것이 내가 의혹이 여러 가지로 생겨 중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까닭이로다. 아아. 너의 온후한 덕성과 효우의 행실로써 상천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어찌 재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부왕의 병든 몸은 그 영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나오시니, 도인의 말이 과연 징험이 있도다. 이로써 보면 내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것 또한 가히 날을 기약하여 기다릴지로다. 비록 그러하나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지금껏 4년이니, 어찌 너에게 큰 액운이 닥쳐 천수를 도망키 어려움이 그 도인이 나를 속여 그리함인가? 우주가 아득하나 질문할 곳이 없고 하늘 끝과 땅 모퉁이에 소식을 의거할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아아. 네가 동궁에 있을 때에 길들인 바 **붉은 기러기**가 네가 남해로 간 후부터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홀로 배회하며 매양 나를 대하여 머뭇거리며 슬피 울되 하소연하는 바가 있는 듯하니, 뜻하건대 네가 혹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 있어 나로 하여금 서간을 부치게 하고자 그리함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마음이 어지럽고 붓을 잡아 쓰고자 하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도다. 기러기의 발에 매어 소식을 부쳐 멀리 묻노니, 너는 과연 보는가, 못 보는가? 고통이 가슴에 얹히고 일은 허탄하니 그 전하고 전하지 않음은 가히 알지 못할지라. 기러기가 당도하는 날에 곧 답서를 보내어 노모로 하여금 주야로 멀리 바라보게 하지 말라. 천만 울며 축수 하노라.’

공주가 보기를 다하더니 오열하며 눈물을 흘려 비로소 소선이 신라국 태자로서 타국에 표박함은 왕자 세징으로 인하여 그리됨을 알았더라. 이에 옷깃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소선더러 가로되,

“이제 기러기의 발에 매인 글을 보니 곧 귀국 왕비의 수찰이라. 청컨대 태자를 위하여 한 번 외우리다.” 이윽고 등불을 밝힌 후 한 번 낭독하니, 음성이 청아하여 옥을 울림 같거늘, 글자마다 뼈에 사무치고 글귀마다 코에 시리니, 좌우의 궁녀가 듣고 또한 모두 말을 잃고 울며 소선은 머리를 숙이고 듣다가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급히 두 손으로 모비의 수찰을 받들고 어루만지며 슬피 울다가 홀연 뜻밖에 두 눈이 활짝 열려 물건을 봄에 환하여 장애됨이 없더라. 공주를 보매 봉관 하피(鳳冠霞帔)*로 용모가 연꽃같이 방금 자리 위에 단정히 앉았으니, 소선이 황망히 자리를 피하여 머리를 돌이키며 두 손을 모으고 섰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해숙: 중국 남제(南齊) 사람으로 효성이 지극했던 해숙겸(解叔謙)을 말함.

*봉관 하피: 중국에서 황후가 특별한 날에 착용하였던 복식.

10. 서간에 나타나 있는 ‘석 씨’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선이 떠난 이후의 일들을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세징의 말을 인용하여 형제간의 신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부왕이 영약을 먹고 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소선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소선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질문의 형식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11. ‘붉은 기러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선은 울음소리만으로도 붉은 기러기가 자신이 기르던 것임을 알아챘다.
- ② 붉은 기러기는 소선이 남해로 간 뒤에 보금자리를 떠나 자취를 감추곤 했다.
- ③ 왕비 석 씨는 붉은 기러기가 자신의 서간을 소선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 ④ 붉은 기러기는 왕비 석 씨 앞에서 머뭇거리는 행동으로 소선이 머무르는 곳을 알려 주었다.
- ⑤ 붉은 기러기는 과봉루로 날아 들어와 궁녀가 서간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 소설 중에는 실명(失明)한 등장인물이 개안(開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개안의 계기는 주로 가족 간의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다. 즉 실명한 등장인물이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과 상봉하거나 혹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소식을 매개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극적으로 소식이 닿은 것에 감동하여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 이로 볼 때 ‘실명-개안 모티프’는 고전 소설에서 가족의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강조하는 데 자주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족을 사랑하는 왕비 석 씨의 마음이 소선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겠군.
- ② 소선은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 실명에 이르렀으며, 또한 그 효심으로 인해 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군.
- ③ 공주는 왕비 석 씨의 서간을 읽고,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며 소선을 뒤따라간 세징의 가족 사랑에 감동을 받았겠군.
- ④ 공주는 소선을 애타게 찾는 왕비 석 씨의 심정을 대신 전달해 줌으로써 모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소선이 흘린 ‘피눈물’에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눈을 뜨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겠군.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神命論)'은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명론은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으로,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 가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과,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에우튀프론」에서 신명론을 비판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앞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A 견해], 뒤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B 견해] 라고 해보자. A 견해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편 B 견해는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고 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금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 에 빠짐을 지적한다.

먼저 A 견해가 옳다고 해 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을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로서,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로 가는 것이 된다.

신명론이 B 견해를 채택한다고 해 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B 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결국 신명론은 A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인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13.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 ②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 ③ 플라톤은 자신의 신명론 비판이 당시 그리스 신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 ④ 토마스 아퀴나스와 달리 플라톤은 무신론자이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⑤ 신명론에서는 신이 금하면 악한 행동이 되지만 모든 악한 행동을 신이 금하지는 않는다.

14. 딜레마 가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의 명령이 비도덕적이거나 신이 보기에 우리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다.
- ② 신이 도덕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
- ③ 신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다.
- ④ 신이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거나 우리의 실행이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신이 비도덕적인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거나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15. [A 견해] 와 [B 견해] 에 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A 견해는 B 견해와 달리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② B 견해는 A 견해와 달리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③ A 견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B 견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 ④ A 견해와 B 견해 모두 도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 ⑤ A 견해와 B 견해 모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기에 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16. 윗글에 제시된 '신명론'에 대한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② 신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것도 의심해야 하지 않는가?
- ③ 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④ 신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다르다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 ⑤ 신은 심판관으로서 상과 벌을 주지만 일일이 명령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무고한 사람을 해친 어떤 사람을 체포하자, ‘이 사람’은 자신은 신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그 사람을 해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 ① ‘이 사람’은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잘못 알고 있군.
- ② ‘이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③ ‘이 사람’의 행동은, 만약 신명론이 옳다면, 도덕적인 것이 되겠군.
- ④ ‘이 사람’은 설령 남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찾더라도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생각하겠군.
- ⑤ ‘이 사람’에게,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엩고	新筭濁酒如湏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枷登場立
겉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耀日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擊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사방에 가득하네	須臾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까지 날으는 보리 티끌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 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나)

[A] 세상(世上)의 트린 몸이 견무(畝畝)*의 늘거 가니
 밧겻 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연풍(年豐)을
 원호노라
 <제1수>

[B] 농인(農人)이 와 이로더 봄 왓니 바퇴 가새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짜보* 내니
 두어라 내 집부터호라 늠호니 더욱 도타
 <제2수>

[C] 여름날 더운 적의 단싸히 부리로다
 밧고랑 미자호니 썸 흘너 짜희 듯네
 어스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으실고
 <제3수>

[D] 2을회 곡석 보니 도흠도 도흠세고
 내 힘의 닐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기 천사만중(千駟萬鐘)*을 부러 무슴 호리오
 <제4수>

[E] 밤의란 스출 꼬고 나죄란 썬을 부여
 초가(草家)집 자바 밧고 농기(農器)점 츠려스라
 내년(來年)회 봄 온다 호거든 결의 종사(從事)호
 리라
 <제5수>

- 이회일,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견무: 밭의 곶과 이랑. 여기서서는 시골을 의미함.

*쇼보, 짜보: 농기구인 쟁기와 따비.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임.

*입립신고: 낱알 하나하나가 모두 농부의 피땀이 어린 결정체라는 뜻으로, 곡식의 소중함을 이르는 말.

*천사만중: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 찰랑 돌아 놓고 권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펴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돈는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숨씨로다

- 작자 미상, 「논매기 노래」

*산이: 원래는 광대나 재주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노래에서는 선(先)소리꾼을 의미함.

18.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젓빛처럼 뿌영고’,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봄’, ‘여름날’, ‘가을희’에서 계절의 순차적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③ (다)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를 보면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벼슬길에 헤매리오’와 (나)의 ‘부러 무슴 흐리오’를 보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주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압집’과 ‘뒷집’, (다)의 ‘이 논배미’와 ‘저 논배미’를 보면 대비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이동한 공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화자가 농사일을 힘들게만 여겼던 과거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농민들이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농사일이 벌어지는 노동의 공간을 제시하며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에서는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는 제삼자의 관점을 제시하며 농사일할 때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다)에서는 모두 노동에 참여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화자가 경험한 농사일의 힘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20.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자신의 현재 처지를 언급하며 풍년을 원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 인물의 발화와 구체적 사물을 언급하며 농사일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농사일의 어려움을 호소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추수의 기쁨과 농사일의 보람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E]: 농한기 농촌의 일상을 제시하며 내년 농사일을 준비하는 농민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농사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단 노동으로 논매기와 같이 노동의 강도는 약하지만 같은 동작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타작과 같이 노동 시간은 짧지만 노동의 강도가 강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 시간이 긴 경우 농민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지루함을 달래거나 일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역할을 하며, 노동 시간이 짧은 경우의 노래는 큰 힘을 얻기 위해 순간적으로 합일된 동작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민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잊기 위해 술이나 놀이를 곁들이기도 하는데, 농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노동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은 힘겨움의 대상이 아닌,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① (가)에서 농민들이 ‘새로 거른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노동의 힘겨움을 잊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
- ② (가)에서 농민들이 밭을 맞추며 부르는 ‘옹헤야 소리’는 순간적으로 합일된 동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내 집’보다 ‘님’의 일을 해서 더욱 좋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집단 노동을 힘겨움이 아닌,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농부’와 ‘일꾼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놀이를 통해 집단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일락서산’과 ‘월출동령’을 언급하며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노래를 통해 하루 일의 마무리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허울 좋은 독립, 조선 독립을 보장한다,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구실 아래 이권이란 이권은 저 오랑캐들이 다 차지해 버렸으니 피폐한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 메꾸니까? 오로지 헐벗고 주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국가재정을 세우고 왕실 비용을 충당하니…….” / 이렇게 나기주가 한탄하는데 이번엔 최 주사가 끼어들었다.

“조정 것들은 **외국에 이권을 넘겨주고** 구전 책기는 거간꾼에 불과하죠. 그중 폐하의 총애가 가장 두터운 내장경 이용익의 발호가 가히 좌충우돌입니다. 벌써 수백만 금 모아 천하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 아닙니까? 왕실 비용을 마련한다고 두만강, 압록강의 드넓은 삼림 채벌권을 노서아에 양도하질 않나, 법국 차관을 들여올 궁리를 하지 않나, 봉세관을 팔도에 보내 세금을 더러더러 앵기고 있는 것도 그 작자의 사업입죠. 그중 우리 제주섬은 제일 만만하게 보아, 선산을 지키는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에도, 띠풀 같은 잡초에도 세를 붙이니, 어찌 **소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세액이 많은 지세가 큰 시뻐거리입죠. 천지개벽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제주섬엔 **지세**라곤 없었습니다. 지세 대신 **진상물**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지세까지 내라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감.”

“자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릴 하는구먼, 허허. 지세라면 별칭이 **왕세(王稅)**인데 제주섬도 조선 왕의 땅이거늘, 왕세는 내야 함이 도리가 아닌가. 요 근래는 진상도 하지 않는 모양인데…… 굴 과수원도 봉세관을 시켜 민간에 팔아 치워 폐지하지 않았는가.”

“대감, 잘못 알고 계십니다요. 진상이 없어진 게 아녓죠. 굴 진상은 폐지된 게 사실입니다만 전복 진상은어떻게에 갖다 붙이고, 말 진상은 공마대전(貢馬代錢)이라 하여 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기주가 입을 열었다.

“흠,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진상이란 원래 속방(屬邦)이 종주국에 바치는 예물이 아니요? 예로부터 이 섬에 왕세 대신 진상의 의무를 지운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거지요.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수천 리 물 밖에 있음을 기화로 자주 토란(土亂)을 일으켜 조정에 거역하는 섬 백성들을 무마시켜 보려는 교육지책이죠. 왕세가 없고 진상이 있음은 곧 제주섬이 아직도 탐라국의 전통을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요.” / 이 말에 최 주사는 펄쩍 뿔 듯이 놀란 얼굴로,

“원, 형님도, 탐라국이라뇨? 우리 섬 백성들도 어엿한 폐하의 적자인데…… 다만 섬 땅이 척박하여 세곡마련이 어렵기로 대신 진상물로 백성 된 도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하, 최 형, 꽤나 몸을 사리는군. 내가 최 형을 반역죄로 받고할까 봐 그러시오? 하하하.”

나기주가 이렇게 꺾꺾 호탕하게 웃고 최 주사는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듯 뒷머리를 긁었다.

“가까이 방성칠란만 봐도 알지 않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섬 백성들 마음 한구석엔 옛날 탐라국 시절의태평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 있는 거요.”

이때 운양 대감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 민회(民會)에 다른 세폐와 진상의 폐는 거론할지언정 왕세만은 시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여.
 [A] 왕세를 거역함은 국왕을 거역함이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하고 최 주사가 머리를 조아렸다.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나)

S# 72. 제주성 안 교당 (낮)

채 군수: (벌떡 성을 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장의 허락도 없이 무기고를 열다니요, 이곳 제주는 엄연히 대한 제국의 영토입니다.

구 신부: (못마땅한 얼굴로) 사또께선 무얼 하시는 분이오?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할 폭도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소?

채 군수: 그거야 교당 측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민당들을 습격한 것 때문 아니오? 화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최 선달: (발끈하여) 아니 사또 나으리, 난리를 진압할 책임이야 실은 사또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또가 못하시니까 우리가 대신 나선 것을 이제 와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 군수: (성을 내며) 이놈! 군마로 관부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 하였다. 대정군 관아를 난장 박살 낸 게 니놈이 한 짓인 줄 모를 줄 아느냐!

구 신부: (꾸짖는 태도로) 최 선달!

최 선달: 죄송합니다. 신부님.

구 신부: 사또 너무 패념치 마시오. 어쨌거나 난리를 진압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할 뻔한 걸 우리가 구해준 셈 아니오. 그러니 과거사는 묻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협력해야 하오. 폭도들이 동서 양진으로 나뉘 며칠 후면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라 하는데 그 무지한 것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떠난 김 군수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나는 나대로 법국 군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놓았으니 사또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소?

채 군수: (단호하게) 구 신부! 그것만은 안 됩니다. 법국 군대가 제주섬에 들어오는 날엔 피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중략)

S# 83. 군막 안

채 군수: 놈들이 **명월진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불이라도 삼키고 싶겠지만, 생각해 보시오. 신부들이 벌써 **법국 군함과 군대**를 부르러 보냈는데, 그들이 이 섬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작년 청국에서 의화단 사람들이 성교 신부

들과 신자들을 살해했다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를. 법국이며 서양각국들이 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군대를 보내 대량 살육을 하고 급기야는 땅과 이윤을 차지한다고 청국을 갈라 먹고 있지 않소. 법국 함대가 지금 태고*에 있는데 삼 일이면 제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마찬삼: 사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간다고 이 섬이 온전할 성싶소? 저 폭도들을 그냥 두면 이 섬은 온통 법국 천지가 될 거외다. 우리가 안 싸워도 법국 세상이요, 싸워도 법국 세상이라면 우리 싸워서 원풀이를 해야 하겠소이다. 제주성 동쪽에 진을 친 동진의 강우백 장두* 어른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오달문: 사또 어른, 왜 법국 군함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피를 본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저 백성들을 통솔하자면 똑같이 눈알이 뒤집혀야 합니다.

[B] 채 군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재수를 바라본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채 군수는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내쉰다. 고개를 들어 채 군수를 쳐다보는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이재수는 채 군수의 발치로와 무릎을 꿇는다.

이재수: 채 군수 어른,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채 군수: 아니 왜 이러시오?

이재수: 미천한 소인이 군수 어른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히 장두로 나섰습니다.

채 군수: (이재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시게, 자네는 이미 내 종복이 아닐세. 장두가 이러면 되겠나.

마찬삼: 이 장두 어서 일어나시게. 자네는 장두가 아닌가.

하지만 제자리에 꼼짝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이재수: 채 군수 어른. 관노(官奴)인 소인이 비천한 신분으로 장두에 나선 것은 짧은 객기가 영웅 소릴 듣고 뜬 야욕 때문이 아니우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을 뵙서게. 성을 공격하면 지금 당장은 피를 보겠지만, 이대로 흩어진다면 자자손손 더욱 많은 피를 볼 것이우다. 소인은 불쌍한 제주민들이 이번 난리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이 미천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우다.

이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통의 소리로 변해 가고, 내려다보는 채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

- 현기영 원작 / 박광수 외 각색, 「이재수의 난」

*태고: 따구. 북경과 천진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항구. 의화단의 난 때 서양 군대가 집결한 지역.

*장두: 예전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訴狀)이나 청원장(請願狀)의 맨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

2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인물의 관습적 행동을 통해 인물 간 사회적 지위의 우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외양적 모습이 부각되도록 인물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전달하여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인물 간의 이견을 부각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이 상대에 대해 숨겨 왔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3. (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 주사’는 진상물이 있음을 들어 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감’은 지세가 갖는 왕세로서의 성격을 들어 지세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있다.
- ② ‘나기주’는 국가의 이권이 외국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가 재정이 약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최 주사’는 국가의 이권을 넘기며 특정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기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대감’은 굴 과수원을 민간에 매각하였음을 들어 진상이 폐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최 주사’는 진상이 폐지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나기주’는 진상은 중주국에 바치는 예물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지세 부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 주사’는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며 세곡 대신 진상을 유지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나기주’는 ‘최 주사’의 견해가 반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 주사’는 자연환경의 척박함을 들어 제주 백성들의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4. (나)의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 72와 S# 83은 구 신부로 인한 갈등의 심화를 드러냄으로써 외세에 의해 제주가 보호받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S# 72와 S# 83은 다른 대화 상황에서 채 군수의 우려를 드러냄으로써 ‘법국 군대’와의 대결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S# 72와 S# 83은 이재수에 대한 인물들 간의 상이한 평가를 부각함으로써 이재수에 대한 채군수의 신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S# 72와 S# 83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채 군수의 시각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구 신부를 둘러싼 인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있다.
- ⑤ S# 72와 S# 83은 ‘민당’의 성격에 대한 대조적인 평가를 드러냄으로써 전근대적 신분 제도가 완화되는 시대상을 부각하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사물을 ‘팩션 서사’라고 부르는데, 팩션 서사 중에서도 ‘사실’ 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제한하여 창작 내러티브를 만든 것을 ‘역사 팩션 서사’라고 한다. 「변방에 우짖는 새」나 「이재수의 난」과 같은 역사 팩션 서사는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하던 역사적 시기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한다. 하지만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들의 허구적 면모를 가미하여 서사 속 인물로 형상화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 가상의 상황을 창조하여 보여 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공백의 과거를 현재화한다. 이처럼 역사 팩션 서사는 민족사적 사건에 대해 인물들이 갈등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역사를 역동적으로 살아갔던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받아들일게 한다.

- ① (가)에서 최 주사가 ‘외국에 이권을 넘겨준 실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의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하게 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채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되는 모습은 비극적 사건을 겪었던 민족 구성원의 갈등을 서사 속 인물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지세’와 ‘진상물’에 대한 인물 간의 대화와 (나)의 ‘법국 군함과 군대’와 관련된 인물간의 대화는 가상의 공적 역사를 창조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최 주사의 생각과 (나)의 ‘명월진에서 한 짓’에 대해 분개하는 채 군수의 태도는 민족사적 사건에 대해 인물이 대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나기주, 최 주사, 운양 대감, (나)에서 채 군수, 마 찬삼, 오달문 등이 각각 당대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내는 것은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았던 개인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아스팔트는 비슷한 온도의 연못 물에 비해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 이것은 아스팔트와 연못 물의 열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세기에만 해도 사람들은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질량이 없는 입자들인 열소가 그 물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온도계 눈금에 표시되는 온도는 그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열소의 양, 즉 열량으로 간주하였다. 열용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열소론에 의하면 동일한 질량을 가진 모든 종류의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열량도 같다. 즉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모든 물체의 열용량은 같다고 간주한 셈이다. 그러나 물체의 온도가 몇 도라는 것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다르다. 즉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온도라도 두 물체가 가지는 열량, 즉 에너지의 양은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두 물체의 열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용량의 개념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하여 정립되었는데, 그 중 18세기 초 파렌하이트는 수은과 물을 온도가 다른 물에 각각 혼합하는 실험을 통하여 열용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질량과 온도가 동일한 뜨거운 수은과 뜨거운 물을 각각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뜨거운 물을 넣은 경우가 뜨거운 수은을 넣은 경우보다 혼합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같은 질량과 온도에서 물이 수은보다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로부터 물의 열용량이 수은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물은 가장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래서 비열(specific heat)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열용량이란 용어는 18세기 중엽 블랙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양의 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온도와 열량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하여 열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고, 물체가 지닌 열은 그 에너지의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소론에 근거하여 열의 양을 의미하는 열용량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늘날까지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① 열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로서 어떤 물질 1몰의 열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어떤 물질 1몰에 열량 Q가 전달되어 물질의 온도 변화 ΔT가 발생했을 때, 그 물질의 몰 열용량은 Q를 ΔT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이로부터 어떤 물질에 열이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몰 열용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 두 가지로 나뉜다. 동일한 양의 기체가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외부로부터 기체에 열을 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하나는 피스톤을 고정시켜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적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압 과정이다. 기체에 열이 전달되면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갇혀 있는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며 온도 또한 증가한다. 반면 등압 과정에서는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그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 비해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간다. 따라서 두 경우의 몰 열용량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며 각각을 등적 열용량, 등압 열용량이라 지칭한다.

어떤 계(system)의 내부 에너지란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분자 간 상호 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등의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한다.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몰 열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등적 과정의 경우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응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등적 열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반면 등압 과정에서는 들어온 열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팽창하면서 용기의 부피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일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내부 에너지와 팽창일의 두 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 한다.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열용량의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이라 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엔탈피의 절대적인 양은 알 수 없지만 온도 변화와 몰 열용량 값을 이용하여 쉽게 엔탈피 변화량을 추산해 낼 수 있다. 열용량 개념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물질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 물성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온도 변화와 열용량을 이용하면 어떤 공정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용량 개념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열용량이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열용량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열소론 개념의 문제점을 열용량 개념을 이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 ⑤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 값이 열용량에 의해 계산됨을 보여주고 있다.

27.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열용량 개념은 열소론의 개념보다 먼저 제시되었다.
- ② 물과 수은의 질량이 같을 때 수은의 열용량이 물의 열용량보다 크다.
- ③ 계의 잠재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면 계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 ④ 열소론에서는 질량과 온도가 각각 같은 쇳덩이와 납덩이의 열소의 양이 같다고 본다.
- ⑤ 블랙은 열이 분자 운동 에너지의 양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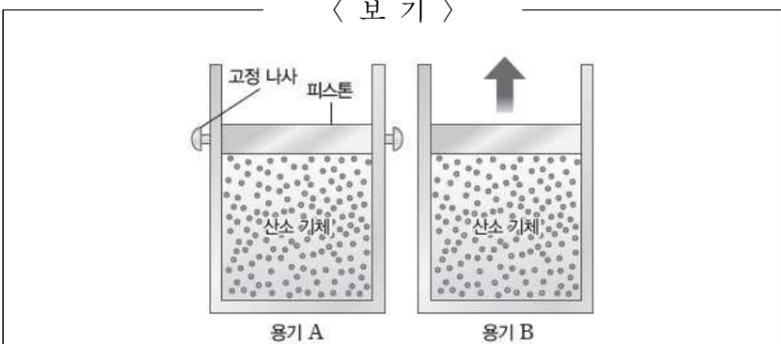
2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상 기체란 기체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없고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으며 질량이 있는 가상의 기체이다. 이상 기체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에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달리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며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준다.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 작용이 감소한다.

- ① 반응에 의해 화학 결합이 변하여도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실제 기체와 달리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③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으므로 일정 부피의 용기 안에 있을 때 팽창일이 존재한다.
- ④ 이상 기체로 이루어진 계에 부피 변화만이 있고 온도 변화가 없다면 계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 ⑤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계의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많을수록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그림>과 같이 분자 수가 동일한 산소 기체가 들어 있고 초기 온도와 부피가 같은 용기 A와 용기 B를 생각해 보자. 용기 A와 B를 가열하여 같은 열량Q가 용기로 유입되었다. 용기 A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어 부피의 변화가 없으며, 용기 B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피스톤이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하여 부피가 더 커졌다. 이때의 용기 A와 용기 B 내부의 상태를 최종 상태라 하자. 최종 상태에서 용기 A와 B의 내부 온도는 각각 T_A , T_B 였다.

- ① 용기 A에 유입된 열량에 의한 팽창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최종 상태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용기 A와 용기 B가 서로 같겠군.
- ③ 용기 A의 내부 온도가 용기 B의 내부 온도에 비해 더 높게 올라가겠군.
- ④ 용기 B 내부의 온도 변화를 등압 열용량과 곱하면 용기 B 내부의 엔탈피 변화를 알 수 있겠군.
- ⑤ 용기 A에 산소 기체보다 열용량이 큰 다른 기체가 채워져 있었다면 용기 A 내부의 온도는 T_A 보다 덜 상승하겠군.

30.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쇠막대는 동일한 크기의 나무 막대보다 더운 여름날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다.
- ② 뜨거운 물과 동일한 부피의 차가운 기름을 섞으면 물의 온도가 두 온도의 사잇값이 된다.
- ③ 수은 온도계와 동일한 기둥 높이의 알코올 온도계는 온도 변화에 따라 눈금의 높이 변화가 다르다.
- ④ 동일한 물수의 알코올과 프로페인을 연료로 쓸 때 같은 양의 물을 끓게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 ⑤ 동일한 양의 물에 같은 온도의 뜨거운 철이나 납을 넣어 온도를 높일 때 필요한 철의 물수가 납의 물수보다 더 작다.

31.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독서를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산다.
- ② 옛날의 신발은 짚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 ③ 지난 여름 방학 때는 두통으로 고통스러웠다.
- ④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된다.
- ⑤ 감독은 선수들을 새로 건설한 축구장으로 모이게 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잠시나마 안정이 그림다. 하도 숨 가쁜 세상이니 흰 구름 멍게 멍게 일어나는 깊은 산,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울리며 사는 승려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 강낭콩같이 푸르고 맑은 호숫가에 일간죽(一竿竹)을 드리우고 고기와 벗을 삼아 질어 가는 저녁노을에 물들어 보는 것도 태고적 꿈인 양 싶다. 구태여 생생한 현실을 등지고 도피의 생활을 추구하라는 진실로 너무나 몸 둘 곳이 없이 숨 가쁘기 때문이다. / 제집 대문간을 나설 때도 무슨 불안이 문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만 같고 제집 문간에 다 와서도 안에서 무슨 괴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만 같다. 이 초조한 심경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안락한 자유성(自由城)은 아니다. 소란과 추악과 야비의 속취(俗臭)는 구석구석 스미어들고 무미와 건조와 침울과 공포는 염통에 쉬파리 떼처럼 들어붙는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10대 소년의 생태를 그린 영화의 제목이라거니와 ‘이유 없는 초조’는 노경에 가까워가도 면할 수 없는 현대인의 생태라고나 할까. 백팔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초연히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상에 누구냐? 그러나 나에게만 한 복지(福祉)가 남아 있다. ㉠변소에 문을 닫고 용변하는 시간만은 완전히 이 세상과 절연된 특권을 향유한다. 겨우 두 다리를 오그리고 앉을 수 있는 좁은 우주. 그러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우주요, 나에게만 주권이 부여되어 있는 왕국이다. 이 우주 안에 들어 있는 동안만은 완전히 치외 법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할애받고 있다. 그 시간만은 아무도 내 절대권을 침해하려 들지 않는다.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시간 선상에서도 나에게만 완전히 포기해 준 은총의 시간이다. 큰기침을 하건 가래침을 뱉건 바지춤을 끄르고 하반부의 둔육(臀肉)을 노출하건, 수록 병진(水陸竝進)으로 배출을 하건, 악취를 마음대로 분산시키건, 아무 시비도 체면도 없다. 법률이야 물론이지만 도덕도 예의도, 인습도 전통도 아무것도 - . 모든 사회적인 간섭, 인간적인 관련에서 오는 시비 훼예*

도 없다.

나는 굳이 내 결백을 수식할 필요도 내 단정한 품격을 조작할 필요도, 시간에 분망할 필요도 없다. 우선 조여 매었던 혁대를 끄르고 켜켜로 입었던 바지며 내의, 속내의에서부터 허반부의 둔육을 해방시키고 두 발을 고여, 전신을 편안히 내려앉히면 위로 충만했던 모든 들뜬 기운이 가라앉으며 평온한 희황시대(羲皇時代)로 돌아온다. 향기롭지 못한 냄새도 어느덧 잊어버리고 만다. 마치 이 세상에 오래 살아 이 세상 냄새를 모르고 배기듯이. 아무도 이 문을 열 사람은 없다. 아무 일도 내 스스로가 나가기 전에는 부를 리도 없다. 찾을 리도 없다.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은 나의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권위 있게 스톱당하고 만다. 지구조차 이 속에서는 돌지 않는다. 외계에서 수 소탄이 터지든 태양이 물구나무를 서든 나는 결코 개의하지 아니해도 좋다.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무관심과 태만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책하는 사람은 없다. 잠시 가쁜숨을 그치고 유유자적한 세계에서 기상천외의 꿈속을 헤매며 오유(遨遊)*하는 것도 나의 자유일 것이다. 이지상에서 자유 해탈의 시간은 이 시간뿐이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놀던 기산(箕山) 영수(潁水)는 남아 있는 곳이 이곳뿐이다.

- 윤오영, 「축상락(廁上樂)」

*혜예: 휘방과 칭찬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오유: 재미있고 즐겁게 놀.

*소부 허유: 중국 고대의 은자(隱者). 요임금이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려 허유를 찾아가 임금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자 허유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하여 기산의 영수에서 귀를 씻고, 소부는 그 물을 구정물이라 하여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함.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다.
- ② 시대의 변화를 바탕으로 처세의 바람직한 태도를 모색하고 있다.
- ③ 유머와 위트를 통해 일상적 행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통해 사물의 복합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33. ㉠이 글쓴이에게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과 단절되어 철저히 혼자가 되는 공간이다.
- ② 초조와 불안의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공간이다.
- ④ 세상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공간이다.
- ⑤ 가식과 조작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34.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유는 근대인에게 독립과 합리성을 부여해 주었지만, 또한 근대인을 고립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를 불안에 싸인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고립은 참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근대인은 자유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의존과 복종을 찾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성에 기인된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해 가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에서

-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자유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적 가치라고 보고 있군.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③ 윗글이 현대인들의 의지를 통해서 자유가 획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 <보기>는 근대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가 상실되어 있다고 보고 있군.
- ④ 윗글이 현실을 완전히 등짐으로써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 <보기>는 의존과 복종을 통해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⑤ 윗글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 현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면, <보기>는 근대인들의 불안 심리가 자유로 인한 고립에 있다고 보고 있군.

2022학년도 수능대비 연.어 문제 1회 정답지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1	5	13	1	25	3
2	1	14	2	26	5
3	5	15	4	27	4
4	5	16	3	28	4
5	5	17	1	29	2
6	5	18	5	30	5
7	1	19	3	31	1
8	3	20	3	32	3
9	1	21	4	33	4
10	2	22	1	34	5
11	1	23	5		
12	3	24	2		